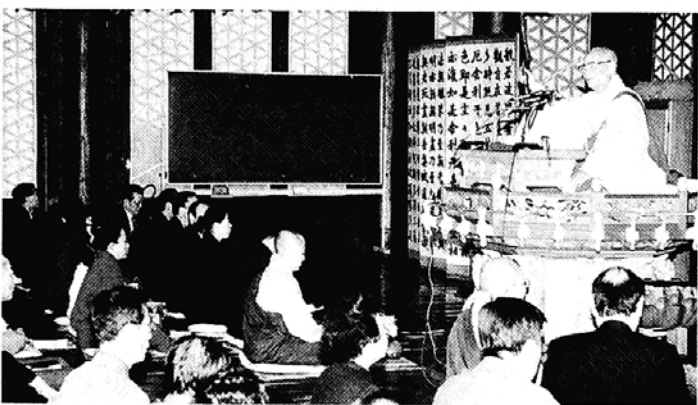


크스님 수행한담

자기 허물 먼저 보세요”



3월2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개강법문을 하고 있는 녹원스님. 녹원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동국대가 지구촌을 향해 펼쳐 나래를 펼쳐 고통받는 이들을 감싸주고 지혜를 줄수있는 사명감으로 정진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망상속에 사는 고통의 중생살이 상락아정의 세계로 가려면 부처님 법에 의지 정진해야”

고 소문난 도립선사를 찾아갔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가 뭐니까” 물으니 “제악(諸惡)을 막작(莫作)하고 중선(衆善)을 병행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백낙천이 실망하고 속으로 공언히 왔다. 그런 말은 세상밖은 아...

그리고 잠을 줄입니다. 나는 잠을 많이 안 잡니다. 한 3~4시간 잡니다. 우리 국민들도 잠을 줄이고 근면하고 거짓없이 진실을 가지고 사는 국민이 됐을 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사 한암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고 안거처에 선방을 찾을 때 외에는 나는 70평생 직지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지사는 예전부터 선방이 유명합니다. 수행하는 남자들은 여름에는 금강산으로 가 안거를 하고 겨울에는 직지사 황악산선원에서 정진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직지사에서 행자들 3백명이 합동행자교육을 받고있는데 기초부터 잘 배워 지금 가진 그 초발심을 그대로 견지해 훌륭한 스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요.

수행자는 항상 배우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 정진이고, 출가할 때의 초발심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른 수행자의 길인 것입니다. 승가의 본분을 지버리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항상 승가의 위계를 확립하겠다는 원력으로 화합해야 해요. 그리고 출가를 하면 내용이 아니에요. 집착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집착을 끊으려면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연한 마음은 망상심이 쉬어갑니다. 망상심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아요. 안개와 구름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미줄 치듯 한 번 안개예요. 실상이 없는 게 우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계는 아닌데 이 생명의 존재물들이 사고를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서 온갖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얼음이 언 것이지요. 얼음때문에 생명의 존재물들이 기지개를 펴고 놀지 못하도록 한 세계가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얼음이 녹을 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지 항상 점검” “내 뜻과 다른 사람마저 포용하고 화합”

지고 망상심도 사그라집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삶은 다 겹생애에 한 행위에 의한 업보 때문이예요. 영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아요. 얼음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얼음이 생긴 것이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물로 돌아가지요. 이 세상 존재물 모두가 그런 이치입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 합니다. 인연 소치로써 존재하는 것이지요.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전생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모든 악을 짓지말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행위는 당초에 생각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다 행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말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세살먹은 어린애도 아는 얘기라고 우습게 여기고 지나쳐 버리기 쉬워요.

무엇이든 돈독하고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학문을 하고 뭘 하더라도 돈독한 정성을 기울여야 해요. 부처님은 왕이 될 신분인데도 한 나라와 한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할 게 아니라 온 중생을 위해 부처가 돼야겠다 하고 고행 끝에 부처님이 되셨지요. 3천년 전에 나누어 육신을 없애셨어도 지금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실한 법을 깨닫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일생동안 진실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진실의 빛이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금년부터는 상하 모두가 거짓이 없고 모든 지구촌이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종근

<호원대학교 교수>



불교에 귀의 한 것은 대학시절이다. 그 전에는 '나 자신밖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원한다'는 것이 내 방식의 종교관이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깨닫게 되면서 불자가 됐다. 사실 나는 불자보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기독교계 단 중학교를 다니면서 3년간 예배와 성경공부를 했고, 6년여간 교직생활도 했을 정도로 종교적 환경은 기독교 일색이었다. 적지 않은 세월을 기독교와 함께 하면서도 내 마음의 불심이 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전생에 불법과의 인연이 대단했던 것 같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쉽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점심공양을 하는 자리에서 한 동료교수가 '불교가 무엇인가, 왜 절을 하느냐, 불상은 우상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해왔다.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불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 할 수 없었다.

“천천클럽” 조직 불우이웃에 자비손길 국어사전등 불교왜곡 내용 개선 노력

게 되었고 내가 가야 할 종교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했고, 아내와 함께 아무 포교사가 됐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언젠가 도법스님께서 법문을 하면서 "불교를 한다는 사람이 불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을 때 왜 불교를 '믿는다'고 하시지 않고 '한다'고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졌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렵듯이 그 의미를 알게 됐다.



지난해 우리는 선우 전주지회에서는 초발심자경문 등 경전공부를 했고, 전주소년원 법회에 참여하는 등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전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련대회 도우미, 남원 실상사의 무공해 농산물 판매대행 등을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 부문에서 제일 큰 성과는 우리나라 모든 국어사전들이 불기(佛記)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한글학회를 포함한 국어사전을 발행하는 출판사와 교계에 국어사전 정정 운동을 전개하여 한글학회, 민중서림 등의 국내 최대의 국어사전 출판사들의 사과와 정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국어사전 검토팀을 운영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환희로움은 말로 표현

Advertisement for 'Bakchanho, 20 wins or 20 losses?' featuring a baseball and promotional text for a book series by Beoksan-snim.